



김범일 | 대구광역시 시장

금호강에서 대구의 희망을 본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아름다운 항구나 명품 강을 갖고 있으며, 그 강을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강을 주축으로 주변에 대학이나 공원, 박물관 등 명소나 문화 유산들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강 주위는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되어 왔다.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캐나다 리도강, 스위스 아르강, 스페인 네르비온강 등은 강을 매개로 도시의 품격을 높인 곳이다.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다.

우리도 90여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의 중요성을 알고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강에는 물이 풍부하게 흐르게 하자. 우리나라 산과 물이 개조되면 자연히 짐승, 곤충, 물고기들이 그 곳에 번식하고 저 울창한 숲 속과 잔잔한 물가에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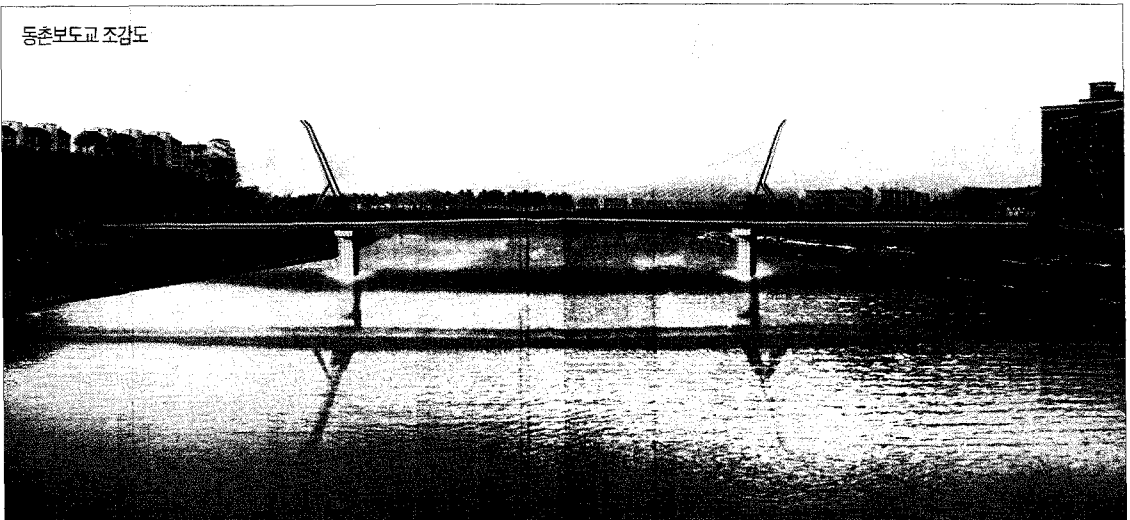
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이 사색할 것”이라며 강과 산을 개조해 국가를 부흥시키자는 ‘강산 개조론’을 주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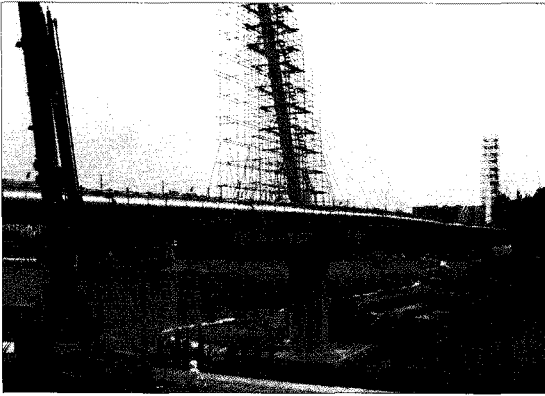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은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강으로의 재탄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낙동강 44, 45공구사업은 대구의 금호강을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금호강은 영천시 죽장면 가사리 남쪽 계곡에서 발원되는 가사천에서 시작되어 영천시와 경산시를 거쳐 대구시로 유입되고, 여기서 달서구 파호동과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의 경계 지점인 옛 강정나루터 부근에서 낙동강 본류로 흘러들어간다. 총길이 116km, 유역면적 2,053.3km²로 유역면적은 낙동강 다음으로 대구·경북에서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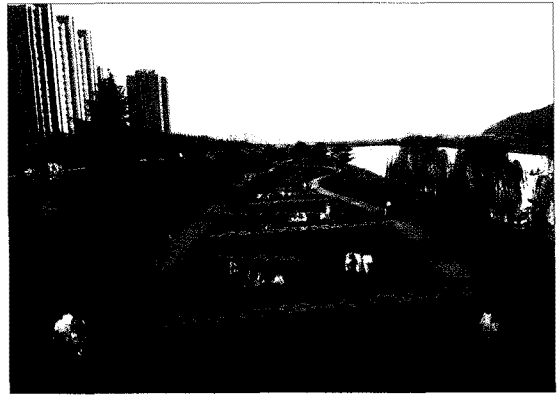
금호강에 대해서는 옛날 문헌에 많이 언급되는데 특히 서

동춘보도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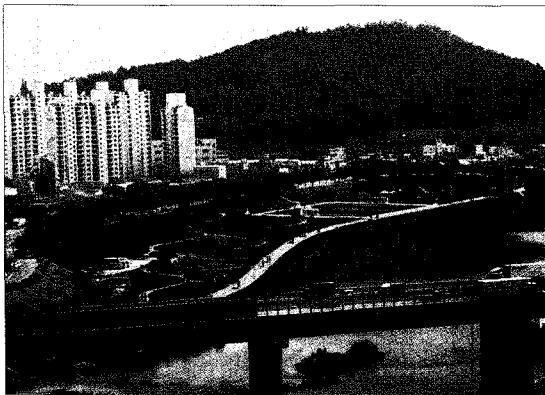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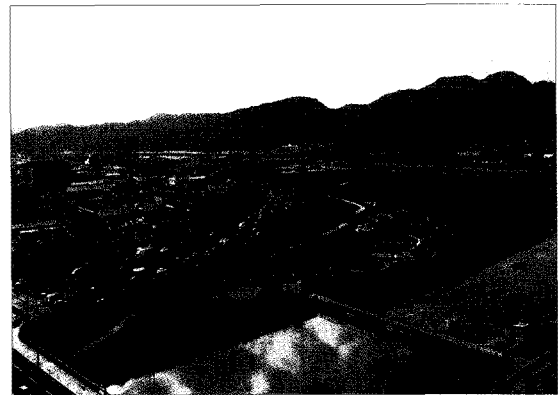
동촌보도교 공사시행 장면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조감도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조감도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조감도

거정이 지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대구십경(大邱十景)에 금호강의 뱃놀이(琴湖泛舟), 입암에서의 낚시(笠巖釣魚), 도동의 측백수림(北壁香林), 노원에서 송별(梅院送客), 침산의 저녁노을(砦山落照) 등으로 금호강 주변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금호강에는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가 있다. 동촌유원지 옆 망우공원에는 의병대장 광재우 장군의 동상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광재우 장군이 있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금호강 북쪽에는 팔공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데, 팔공산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은 신라가 도읍지를 옮기려 했던 명당이기도 하다. 대구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동촌유원지가 있고,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공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금호강이 80년대 산업

화와 유지용수 부족으로 강창교 지점은 BOD 111.0mg/l에 달해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으나, 최근 수질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BOD 3~5mg/l로 개선되었다.

2010년 10월 금호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7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구간은 대구시와 경산시 경계에서 금호강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총 41.4km에 해당한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금호강의 홍수방지와 생태계 복원이며, 이를 위해 하도준설, 가동보 설치, 경관 보도교 건설, 자전거길과 산책로 조성을 추진한다. 구간별 계획으로는 화랑교~낙동강 합류지에 이르는 약 30km 구간은 하상준설을 통하여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추진하며, 수변경관 향상 및 수변 레포츠장 활용을 위해 기존의 콘크리트보인 무태보와 동촌보를 고무보로 교체해 가창댐보다 많은 1,100만^m 수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친수공간을 19개소 조성하며, 동촌유원지와 연계하여 달서천 합류구간까지 왕복 40km를 '백리길 조깅코스'로 특화할 예정이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노곡교와 팔달교 사이 하천에 섬처럼 형성되어 있는 22만㎡의 하중도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이며, 하중도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생태공원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1968년 설치되어 40여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약 250m 길이의 동촌구름다리는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하류에 자전거와 보행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촌 보도교를 만들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은 2011년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2012년 6월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롭

게 단장된 강과 주변 둔치의 생태공간은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 문제 해결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금호강은 한층 더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것이다.

금호강은 대구의 미래이다. 금호강에서 대구의 희망을 본다. ●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설장면